Ⅲ. 유형별 문항분석

1. 인문 I

2019학년도 논술고사 인문계열 I에 출제된 제시문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에 대한 인식, 그리고 시간과 일을 바라보는 여러 관점을 담고 있는 글들로, 수험생들의 정확한 이해 능력과 비판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데 적합한 글들이다. 제시문 [가]는 철도로 인해 급속하게 변화한 근대 이후 시간관을 부각하고 있다면, 제시문 [나]는 각 존재들이 가지게 되는 상대적 시간 인식을, 제시문 [다]에서는 현재를 중심으로 한 해석학적 시간관을 대비적으로 보여 준다. 제시문 [라]는 시간을 화폐처럼 저축하고 쓸 수 있다는 새로운 발상을 통해 공존의 문화를 모색하고 있으며, 제시문 [마]는 우리의 몸이 지키고 있는 시간에 대한 고찰을 통해 시간에 대한 또 다른 인식의 지평을 펼쳐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제시문 [바]는 여러 동물들의 다양한 습성 속에서 노동 시간과 게으름의 의미를 새롭게 생각해 보게 하며, 제시문 [사]는 일에 대한 근본적이고 철학적인 통찰을 담고 있다.

■ **문제배경 설명 : [문제 1] ~ [문제 3] 제시문**

제시문 [가]는 안광복의 「지리 시간에 철학하기」에서 발췌한 글이다. 철도가 나타나면서 사회의 시간 개념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게 되는 과정, 그리고 그에 따른 우리 삶의 변화를 비판적인 시각으로 설명하고 있다. 철도가 산업의 효율을 높여 주었지만, 그 대가로 인간은 지역과 여건에 따른 삶의 다양성을 잃게 되었고, 모든 곳의 삶이 정해진 시간에 따라 표준화되고 획일화됨에 따라 사람이 기계에 의해 지배당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현실에 이르렀음을 보여 주고 있다. (출처: 『국어 Ⅱ』, 창비, 2016, 98-99쪽)

제시문 [나]는 장자의 「소요유」에서 발췌한 글이다. 지혜의 상대적인 수준을 살피는 가운데 수명이 다른 존재들에게는 시간 역시 동일한 의미일 수 없음을 논하고 있다. 하루를 다 살지 못하는 '조균', 한 계절을 다 살지 못하는 '혜고' 같이 짧은 일생을 사는 경우와, 수백 년을 사는 거북, 수천 년을 사는 나무 등 인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길게 사는 존재들을 비교하면서 좁은 안목과 식견으로 세계를 인식하고 판단하는 어리석음을 경계하고 있다. (출처: 『고전』, 해냄에듀, 2014, 226쪽)

제시문 [다]는 신승환의 「우린 어떤 이야기에 살고 있나」에서 발췌한 글로, 우리의 삶을 '지금 여기'라는 시간과 공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과거와 미래의 교차, 그리고 그로부터 만들어지는 이야기로 판단하고, 그에 대한 해석학적 이해를 펼쳐 보이는 글이다. '현재'라는 시간은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 같지만, 사실 이 현재는 과거를 새롭게 해석하는 장소이며, 미래의 결단이 만들어지는 곳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현재라는 시간은 언제나 과거와 미래에 긴밀하게 맞닿아 있다. 이러한 시간관을 취할 때 삶을 하나의 '이야기'로 볼 수 있게 되며, 우리 삶의 과정과 결과, 그리고 삶의 역사가 담긴 이 이야기를 과거라는 씨줄과 미래라는 날줄의 교차와 직조로 읽어 낼 때 비로소 우리는 삶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해석학적 사유가 글의 바탕을 이루고 있다. (출처: 『독서와 문법』, 지학사, 2014, 74-75쪽)

제시문 [라]는 타인을 위하여 재능을 기부한 시간만큼 자신도 타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간 은행' 제도에 관한 글인 「Do You Have a Time Bank Account?」에서 발췌, 수정하였다. '시간 은행'을 통해 시간이 돈과 같은 교환 가치로 환산됨으로써 공동체에서 시간의 합리적 거래가 공존의 기반이 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매 시간 단위가 개인의 의지와 노력에 의해 다양한 질적 가치로 환원될 수 있음을 암시함으로써 시간의 사회·문화적인 의미를 생각하게 한다. (출처: 『High School English II』, 비상교육, 2013, 102-107쪽)

제시문 [마]는 24시간을 주기로 작동하는 우리 몸의 생체 시계에 관한 글인 「우리 몸의 생체 시계」에서 발췌하였다. 우리 몸은 빛이 통과하는 지점에 위치한 뇌의 시교차상 핵이 중앙 통제 시계의 역할을 하면서 특정한 시간에 잠을 관장하는 호르몬이 분비되거나 신체 반응 속도가 달라지는 등 비교적 일률적인 행동 양상을 보이도록 구조화 되어 있다. 따라서 타고난 생체 시계를 거스르지 않게 생활하는 것이 건강하고 효율적인 삶으로 나아가는 방법임을 설명하고 있다. (출처: 『국어 I』, 해냄에듀, 2014, 248-250쪽)

제시문 [바]는 N. 앤지어의 「벌처럼 부지런하다?」에서 발췌한 글이다. 사람들은 일벌과 일개미가 부지런한 동물이라 생각하지만, 실제로 일하는 시간은 낮 시간의 20%에 불과하며 휴식시간이 상당히 길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에 비해 인간은 일하는 시간이 길고 문화권에 따라 노동 시간도 다르다. 글쓴이는 게으름을 죄악시하는 인간의 특징을 문화적인 훈련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출처: 『독서와 문법 Ⅱ』, 미래엔, 2012, 276-280쪽)

제시문 [사]는 박이문의 「일」에서 발췌한 글이다. 이 글은 동물과의 비교를 통해 인간의 노동이 갖는 의미에 대한 통찰을 담고 있다. 인간은 창조적 작업을 통해서 동물과 구별되는데, 인간이 하는 일에서 가치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일의 종류를 나누어 이해해야 한다. 글쓴이는 한나 아렌트의 구분법인 창조적 '작업'과 기계적 '고역'을 통해 전자의 고귀함에 주목하는 한편 후자의 철폐를 촉구한다. 요컨대 글쓴이는 가치 있는 일을 하는 인간에게서 동물과 구별되는 인간의 존엄성을 찾아낸다. (출처: 『국어 Ⅰ』, 미래엔, 2014, 214-217쪽)

[문제1] 제시문 [가]와 [나]를 대비하여 요약하고, 그 둘을 제시문 [다]의 관점에서 비판하시오. [40점]

■ 출제의도

이 문항은 시간에 관한 세 가지 다른 관점의 지문을 제시하여, 학생들이 그 각각의 지문의 내용을 바르게 이해하였는지 확인하고, 그들 지문의 내용을 서로 비교하여 주어진 관점에서 다른 관점을 비판할 수 있는지 평가하고자 하는 문항이다. 제시문들은 획일적인 시간, 상대적인 시간, 그리고 의미를 읽어낼 수 있는 시간으로 시간에 대한 상이한 관점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세 개의 제시문들을 하나의 틀 속에서 비교하고, 글쓴이의 관점을 비판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는 것이 이 문항의 출제 의도이다. 제시문 [가]의 경우 인간의 삶을 지배하는 획일적 시간을 논하고 있는 반면, 제시문 [나]의 경우에는 존재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의 경우를 보이면서 시간의 상대성, 그리고 그러한 인식을 통한 지혜의 폭과 깊이에 대해 논하고 있다. 한편 제시문 [다]는 [가]의 획일적 시간, [나]의 상대적 시간과 달리, 인간의 시간을 해석의 대상인 '이야기'에 비유하면서 우리의 삶을 '현재'라는 시간에 관계하고 있는 과거와 미래의 영향 속에서 파악하여야 한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따라서 해석학적인 관점의 제시문 [다]의 관점으로부터 제시문 [가]의 획일적 시간, 제시문 [나]의 상대적 시간의 어떤 부분을 비판할 수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이 문항의 의도이다.

■ 우수답안

제시문 [가]에 제시된 '철도 시간'은 어떤 사정도 고려하지 않고, 조금의 예외도 인정하지 않는 획일적인 시간이다. 세상이 철도에 의해 점점 더 가까워지고, 한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다른 지역과 긴밀하게 연관을 맺게 되면서, '출발과 도착 시간'만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과정의 다양성과 상이함에 대한 고려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다. 오차 없는 결과의 교환만이 중요한 가치로 대두된 것이다. 근대의 이러한 변화는 비단 산업 분야에 그치지 않고, 이제 우리의 모든 일상을 지배하게 되어 공부나 일은 물론이고 식사나 휴식조차도 획일적인 시간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 이에 비해 제시문 [나]의 시간은 지극히 상대적인 시간이다. 열거된 몇 가지 사례들을 통해 우리는 하루도 채 살지 못하는 존재에서부터 팔천 년을 넘게 사는 존재까지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짧은 수명의 존재가 가지는 세계에 대한 인식이 매우 긴 수명을 가진 존재의 인식에 미치지 못할 수밖에 없음을 논하면서, 우리가 소소한 지혜에 만족해서는 안 되고 큰 지혜를 추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제시문 [다]는 '현재'가 과거의 기억과 미래를 향한 결단이 교차하는 일종의 이야기라는 관점에서 시간을 파악하고 있다. 즉 찰나에 불과한 것 같은 '현재'라는 시간이야말로 우리의 삶이 이어지고 변화하는 중요한 지점이며, 한 인간의 모든 것이 담겨 있는 중요한 해석의 지평이라는 것이다. 제시문 [다]의 이러한 해석학적 관점에서 볼 때, 제시문 [가]의 획일적 시간은 각 존재들이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과거와 미래의 연결 고리들을 무시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며, 다양한 삶이 빚어내고 있는 이야기들의 다채로움을 온전히 볼 수 없게 한다는 점에서 비인간적인 시간관이라고 비판할 수 있다. 또한 제시문 [나]의 상대적 시간은 자칫 삶의 시간 길이에 비례하여 지혜의 크기가 커진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반나절을 사는 존재라고 하더라도 그 존재의 현재는 충분히 그의 이전 시간과 이후 시간의 교직을 통한 고유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짧은 시간을 사는 존재의 '현재'에서도 그 나름의 가치를 읽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 우수답안 분석

이 문항의 답안은 먼저 제시문 [가]와 제시문 [나]를 요약한 후 각각의 특징을 '시간' 또는 '현재'라는 핵심어로 다시 살펴보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원 저자의 개념이나 메시지를 문항에서 요구하는 핵심어에 맞추어 새롭게 요약함으로써 두 제시문의 비교가 가능하게 만드는 일은 이와 같은 유형의 문항에 답하는 데 있어 중요한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제시문 [다]에서 취하고 있는 해석학적 관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근거하여 제시문 [가]의 시간관이 가지는 폐해와 제시문 [나]의 시간관이 가지는 한계를 지적하여 정리한 것도 문항에서 요구하는 핵심을 제대로 짚어 낸 것이라 할 수 있다.

[문제2] 제시문 [라]와 [마]에 나타난 인간의 삶과 시간의 관계를 바라보는 시각을 비교하시오. [30점]

■ 출제의도

이 문항은 시간을 물리적, 양적일 뿐 아니라 사회적, 질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며 인간의 삶과 시간과의 관계를 다양한 관점에서 파악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고자 한다. '시간 은행' 제도는 시간을 돈처럼 저축하고 교환하기도 하는 보다 생소한 시간 개념을 제시하며, '생체 시계'는 상대적으로 익숙한 고정적, 기계적 시간 개념을 보여 준다. 이 둘을 비교하여 삶과 시간의 관계를 정의하는 데에 있어 인간 의지의 역할을 생각해 보며, 인간 사회의 공존 및 최적의 삶의 조건을 위해 우리가 시간과 어떠한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를 다각적으로 분석 및 추론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 우수답안

제시문 [라]와 [마]는 공통적으로 인간의 삶의 주요한 조건으로서 시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시간을 잘 활용 및 관리하여 보다 나은 삶으로 나아가는 방도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두 제시문은 시간에 대한 상이한 관점 또한 보여 준다.

제시문 [라]에 나타난 '시간 은행' 제도는 삶에서 시간이 인간의 노력과 의지에 따라 다양한 내용과 가치를 가질 수 있음을 보여 준다. 똑같은 한 시간이라 하더라도 별일 없이 소모된 것은 의미가 없지만 이를 공동체에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다양한 재능을 봉사하는 시간으로 환원하여 교환하면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 예시에서 나오듯 타인의 강아지를 훈련해 주는 데 봉사한 나의 한 시간은 필요에 따라 내 집을 색칠하는 타인의 봉사의 한 시간으로 되돌아올 수 있는 것이다. 즉 이 글에 따르면 시간은 인간의 의지에 따라 통제할 수 있는 것이며, 똑같은 한 단위 시간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시간관은 시간을 인간이 자율적으로 저장, 분배 및 교환할 수 있는 것으로 보며, 단순히 인간 삶을 양적으로 측정하는 고정된 단위가 아니라 인간의 활용에 따라 사회·문화적으로 그 의미가 다양하게 생성될 수 있는 것으로 여긴다.

반면 제시문 [마]는 인간이 자율 의지로 바꾸기 어려운 생체 시계를 타고 났다고 주장함으로써 제시문 [라]와는 확연히 다른 시간관을 보여 준다. 저자는 인간 뇌의 시교차상 핵이 신체가 24시간 주기에 맞춰 활동하도록 하는 중앙 통제 시계의 기능을 한다는 과학적 근거를 들어, 결국 모든 인간의 신체가 이러한 타고난 생체 시계의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모든 인간은 이러한 생체 시계에 맞춰 가장 깊은 수면을 취하거나 신체가 가장 효율적으로 반응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최대한 이에 맞추어 사는 것이 중요하다. 일례로 일부 병원 응급실에서 벌어지는 판단의 실수도 의료진의 생체 시계를 거스르는 생활에 따른 업무 능률의 저하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시간관은 제시문 [라]와는 반대로 인간이 시간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시간에 인간의 삶이 통제받는 것으로 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시간에 고정적이며 기계적인 의미를 부여하여, 모든 인간에게 동일한 물리적 시간의 제약이 적용되고 있음을 암시한다.

■ 우수답안 분석

이 문항에서는 제시문 [라]와 제시문 [마]에 등장하는 서로 대조되는 시간관을 이해하고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 '생체 시계'를 다룬 제시문 [마]에는 시간을 기계적이고 물리적 개념으로 보는 비교적 우리에게 익숙한 시간관이 나타나는 반면, 제시문 [라]의 '시간 은행' 제도는 우리에게 다소 낯선 상대적이며 사회적 의미의 시간 개념을 소개한다. 우수 답안은 이 같은 '시간 은행'에서 보이는 새로운 시간 개념을 잘 이해하고 이를 '생체 시계'의 시간 개념과 비교적 명확히 대비하고 있다. 인간과 시간 사이의 통제의 문제가 두 시간관의 가장 큰 차이점임을 파악한 것을 토대로, '시간 은행'에서는 인간이 공존을 위하여 주체적으로 시간을 운용하고 있는 반면 '생체 시계'는 시간이 인간의 삶을 통제하고 있음을 설명한다. 또한 제시문 [라]와 [마]의 서로 다른 두 시간관에 따르면 같은 단위 시간이라 하더라도 인간에게 어떻게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를 적절히 추론 및 분석하고 있다.

[문제3] 인간의 노동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제시문 [바]와 제시문 [사]의 관점을 비교하시오. [30점]

■ 출제의도

이 문항은 제시문을 이해하는 능력을 바탕으로, 두 글에 나타난 일에 대한 인식을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하는 능력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두 제시문은 인간을 동물과 비교하는 공통된 방식에서 출발하지만 궁극적으로 인간의 노동이 갖는 특징과 가치에 대한 상이한 관점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독해력과 논리적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제이다.

■ 우수답안

제시문 [바]와 [사]는 인간의 노동에 관한 것으로, 두 글은 동물과의 비교를 통해 인간의 일이 갖는 특징을 파악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두 제시문은 인간의 노동을 이해하는 관점이 궁극적으로 다르다는 점에서 상이하다.

제시문 [바]는 동물과 달리 인간은 노동 시간이 길고, 문화권에 따른 노동 시간도 상당히 다르다는 점에서 인간의 노동을 문화적 훈련의 산물이라 보고 있다. 부지런한 동물이라 여겨지는 일벌과 일개미도 낮 시간의 20%만 일하는 데 반해 인간의 노동 시간은 지나치게 길고 그것은 돈과 미래를 걱정하기에 생긴 물욕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게으름을 죄악시하고 심지어 쉬고 싶은 욕구마저 억제하며 이루어지는 인간의 노동을 문화적인 훈련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하는 이 글은 자연스럽지 않은 문화적 산물인 인간의 노동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

제시문 [사]는 인간은 동물과 달리 일이라는 창조적 작업을 통해서만 인간적 가치를 파악할 수 있다고 본다는 점에서 일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취한다. 인간은 일함으로써 동물과 구별되며, 일은 땀과 인내를 수반하는 활동이라는 점에서 노력을 요구하지만 그렇기에 인간의 노동은 엄숙하고 거룩하며 고귀하다. 특히 이 글은 인간의 일을 창조적 작업과 기계적 고역으로 구분하는 방법을 통해 일하는 인간의 숭고함을 증명하고 있다. 즉 인간을 타락시키는 고역이 아닌 인간의 존엄성을 높이는 작업으로서의 일을 지향할 것을 권고한다.

제시문 [바]와 [사]는 동물과의 비교를 통해 인간의 노동이 갖는 특징을 파악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일에 대한 가치 판단은 다르게 나타난다. 제시문 [바]는 인간과 동물, 문화권별 노동 시간의 차이를 근거로 들어 인간의 지나친 노동이 갖는 부자연스러움을 입증하고 있고, 제시문 [사]는 인간의 일을 두 가지로 나누어 파악하는 방법을 통해 일하는 인간의 존엄성을 증명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제시문 [바]가 인간이 본능과 달리 장시간 일하는 데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면, 제시문 [사]는 인간이 창조적 일을 통해 존엄성을 높인다고 봄으로써 일에 대해 긍정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 우수답안 분석

이 문항은 인간의 노동에 대한 글인 제시문 [바]와 [사]에 대한 비교를 요구하고 있다. 우수 답안에서는 먼저 두 제시문의 비교 근거로서 인간의 노동을 동물과 비교한다는 전제 조건을 이해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 이어서 제시문 [바]가 인간이 본능과 달리 장시간 일하는 데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면, 제시문 [사]는 인간이 창조적 일을 통해 존엄성을 높인다고 봄으로써 일에 대해 긍정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처럼 동물과 다른 인간의 일에 대한 이해를 적절하게 비교 서술하고, 궁극적으로 인간의 일에 대한 글쓴이의 가치 판단을 명확히 파악하여 제시문 [바]와 [사]가 보이는 상이한 관점이 드러나도록 답안을 작성하고 있다.